

# 관심 줄어들이고 유언비어 난무...불안·고통

**팽목항에 남은 실종자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들**  
**정부 불신 커지고 SNS 명예훼손 등 마음의 상처**  
**실종 승무원 가족들은 죄스러움에 목소리도 못내**

## 세월호 참사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700여명에 달했던 실종자 가족들은 차디찬 바다에서 돌아온 희생자와 함께 진도를 떠났지만 20여명의 가족들은 여전히 간절한 기다림을 안고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이들 가족들에게 날이 갈수록 고통이 잊혀지지는 커녕, 돌아오지 않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 더해지고 혼자 남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가족을 다시는 못 볼 수 있다는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난무하는 유언비어에도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못 미덥고=실종자 수색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답답함과 정부에 대한 불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아이만 바다에서 꺼내달라”는 요청도 들어주지 못하는 정부는 야속하기만 하다. 사고 발생 한참이 지나서도 구조자와 실종자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는가 하면, 사고 초기 수색·구조 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생각에 ‘믿었던’ 정부에 대한 배신감도 가득하다.

온갖 규정을 위반,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회사 대표의 사과문’ 발표 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무책임한 선사에 대한 불만도 타져나오고 있다. 장례 뒤 진도를 다시 찾은 유가족은 “선사 측에서 진도로 내려와 사고해역을 찾아 수색에 도움을 주거나 가족들을 만나 사과하는 등 사고 수습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전혀 없다”라면서 “도대체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선사 측은 무얼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언비어 난무에 고통받고=실종자 가족 30여명이 머무는 진도 실내체육관이 15일 갑자기 술렁였다. 이날 “개보수 공사를 해야하니 체육관을 비워달라”, “팽목항에 조립주택을 지을테니 모두 옮겨달라”고 했다”는 말이 확산하면서다.

급기야 “현재 거주지에서 진도 임회면에 위치한 전남대학교자연학성으로 옮겨달라”는 말까지 퍼돌았다.

가족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실종자 숫자가 줄어들면서 거쳐 이동 소문까지 나돌자 ‘혹시 수색을 그만두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우려에 이대로 잊히는 것 아니냐는 극도의 공포심도 자리잡기 시작했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경기도 한 교사가 “국정원이 실종자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식의 근거없는 소문을 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타고 떠도는 명예 훼손 등도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다. 경찰에 요청, 체육관에 사이버 수사대원을 근무시키고 상담을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죄스러움에 가족 잃고도 목소리 못내고=실종된 승무원 가족들은 숨죽여 수색상황만 지켜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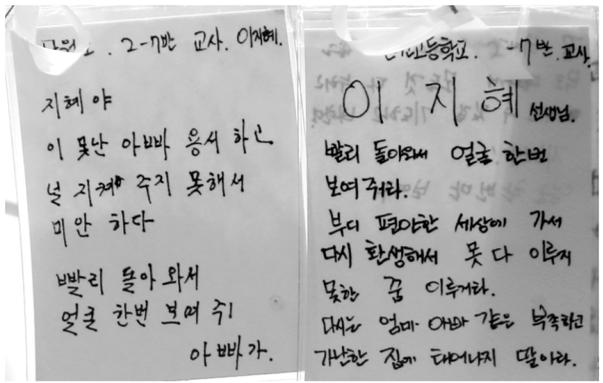
15일 수습된 양대호 사무장 외에 김문익·이요희·구준미씨 등 조리원 3명은 승객에게 제공할 요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해 미처 배를 빠져나오지 못했다. 여전히 실종 상태다. 한 달 넘게 가족을 찾지 못했지만 ‘죄인’이라는 생각이 그나마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숨죽인 채 지켜만 봤다.

참사 한 달 만에 “선원 식당과 조리대 구역도 수색해 달라”고 요청한 이우다. 한 승무원 가족은 “가족이 승무원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어제야 식당이나 조리대 주변 수색을 부탁했다”며 울부짖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간절한 기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0일째인 15일 오전 진도 팽목항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오열하며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승의 날’ 눈물의 메시지** 세월호 참사 한 달, 스승의 날인 15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 방파제 범당에 단원과 2학년 교사인 고(故) 이지혜 씨 유가족이 남긴 메시지가 걸려 있다. 고인은 탑승 당시 사고 때 탈출이 용이한 세월호 5층에 묵었지만 사고 18일째인 지난 3일 세월호 4층 중앙 부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됐다. 4층 중앙 부분에서는 이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2학년 7반 학생들의 시신이 다수 수습된 바 있다. /연합뉴스

## 국가기록원, 각 기관에 세월호 기록물 철저 보존 요청

최근 전문가 단체를 중심으로 ‘세월호 기록물’ 파기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록원이 기록물 보존 대책 수립을 각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최근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지난달 30일자로 발송한 이 공문에서

국가기록원은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기록물은 법정부적 차원에서 기관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생산된 기록물이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각 기관에 당부했다. 국가기록원은 각종 자료와 결과보고서, 사고상황·구조과정·합동분향소운영 등이 담긴 사진과 영상 기록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 도둑의 실수? 범행 현장 지문 없애려 사용한 수건 놓고 나와 탈피

○~지난 3월 절도죄로 만기출소한 30대 절도범이 범행 현장에 남겨진 지문 등을 없애려고 사용한 수건을 놓고 나오는 바람에 경찰에 탈피.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12시1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배모(59)씨의 출입문

을 도구로 연 뒤 물레 들어가 현금 15만원 등을 훔쳤다는 것. ○~동종전과 19번인 김씨는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수건으로 지문·족적 등을 닦아 없애 뒤 그대로 흘리고 나왔는데, 경찰은 맘이 묻은 수건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보낸 뒤 DNA를 채취해 김씨를 검거. /이종행기자 golee@

## 이준석 선장 등 4명 살인 혐의 적용

**광주지검, 15명 기소**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

침몰하는 배에서 탑승객 구조를 외면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항해사, 기관장 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은 15일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원 15명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15명의 선원들을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하고 광주지법으로 기소해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으로 확정했다. 재판은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가 맡는다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를 비롯,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물,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 등 모두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부작위 살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한다. 살인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희생자 284명이다.

검찰은 선장 외에 ▲1등 항해사 강모(42)씨(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물) ▲2등 항해사 김모(47)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기관장 박모

(54)씨(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등 4명에 대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아울러 살인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비, 예비적으로 선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나머지 3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3등 항해사와 조타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선박매물 혐의로, 나머지 선원 9명은 유기치사·상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 선원들의 경우 탈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는 시간, 장비 등이 있었음에도,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고의(故意)로 외면했다고 판단,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이들은 선박 관리와 운항을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에게는 “배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들만 탈출, 28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침몰 사고의 1차적 원인이 된 급격한 변침이 기계적 고장 등이 아닌, 조타 미숙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기소 내용으로 본 승무원들의 천인공노할 행태

### 승객들 숨길 것 알면서도 뻔뻔하게 탈출 신분 감추려 제복 벗고 옷까지 바꿔입어

검찰의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기소 내용은 선원들의 ‘아비한’ 행태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기소 내용으로만 보면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 하고 탈출에만 급급,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뻔뻔함이 드러난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세월호가 급변침 후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자 선장 이준석(69)씨와 기관장 박모(54)씨, 승무원 7명은 조타실로 모였다. 이들은 침수 한계선(배의 2층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는 사실을 알고 탈출을 결심했다. 침수가 시작되면 대부분 여단이 문인 선실 문들이 수압으로 열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기관장 박씨와 기관부원 6명은 오전 9시 6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구조 요청을 하는 사이, 전용 통로를 이용, 3층 승무원실 앞 복도에 일사불란하게 모였다. 이들 승무원은 기운 선실에서 쉽게 빠져나가기 위해 소방호스까지 몸에 묶고 대기하고 있었고 신분용 감추기 위해 승무원실로

다시 들어가 제복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여우까지 부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선체 곳곳에 방송 설비, 전화기, 비상벨, 무전기 등이 있었지만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구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승무원들은 사고를 감지하고 탈출하기까지 휴대전화로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6차례 통화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는 선사와 5차례, 선장 이씨는 35초간 통화하며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일부 기관부원들의 경우 동료 승무원인 조리원 2명이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외면했다.

이후 기관부원들은 배가 50도 이상 기울었을 당시인 오전 9시 36분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구조정에 올라탔다. 선장 등 승무원 8명도 조타실에 있다 오전 9시 48분 경비정에 올라타고 탈출했다.

이미 탈출한 뒤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상황을 물었지만 대답하는 승무원은 없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정도
- 매매가 - 3400만원

**29P - 12층, 15층**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13층, 사무실 적합,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2억원 이상, 2년정도